

Title: the book of Titus – Sermon 1

Scripture: Titus 1:1-4

Date preached: January 9th 2022

Scripture: Titus 1:1-4

1 Paul, a bond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 acknowledgment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cannot lie, promised before time began, 3 but has in due time manifested His word through preaching, which was committed to m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r;

4 To Titus, a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1-4 하나님의 종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나 의 진정한 아들 디도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믿게 하고 그들에게 경건하게 사는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사도가 되었습니다. 믿음과 진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오래 전에 약속하신 것인데 정해진 때에 전도의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전도의 직무를 맡았습니다.

Introduction

Today we are beginning a new sermon series. We will be looking at one of the Apostle Paul's pastoral epistles. As you know Paul wrote 13 books of the New Testament. In percentage terms this means that approximately 23% of the New Testament was written by the Apostle Paul. All of Paul's writing comes to us in the form of letters or epistles. The word *epistle* comes from the Greek word *epistole* which means "letter" or "message." What kind of letters did Paul write? Well for convenience we can divide Paul's letters into three groups.

In the first group we have what we call the missionary epistles or letters. We call them this because they were written during Paul's missionary journeys. These letters are directed to churches or groups in specific areas or regions. The issues that the letters address are general or universal in nature. This means that they were intended to inform and instruct numerous people.

In the second group we have Paul's prison letters. We call them his prison epistles because he wrote them during his period of imprisonment in Rome. Of the four prison epistles three are addressed to churches and one, Philemon is directed to an individual.

The final group is what is commonly known as the pastoral epistles. In this group we have 1st and 2nd Timothy and Titus. These three letters share many similarities. What distinguishes them from all Paul's other letters except Philemon is that they are written to individuals and therefore address specific issues. The reason that they are known as the pastoral epistles is that they are addressed to pastors or leaders in the church (Timothy and Titus). They are intended to give guidance and advice to these men as they lead, or appoint others to lead God's flock.

Let us turn now and focus on the letter of Titus. Before we look at what Paul wrote let us ask and answer some of the background questions that are so essential to our understanding of the book.

오늘 우리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목회 서신 중 하나를 살펴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신약성경 13 권을 썼습니다. 백분율로 따지면 신약의 약 23%가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모든 글은 편지나 서신의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서신이라는 단어는 "편지" 또는 "메시지"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에피스토레(epistole)에서 유래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편지를 썼습니까? 편의상 바울의 편지를 세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선교사 서한 또는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부릅니다. 이 편지들은 특정 지역이나 지역에 있는 교회나 단체에 보내는 것입니다. 편지가 다루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일반적이거나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그룹에는 바울의 감옥 편지가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투옥된 기간 동안 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그의 감옥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4 개의 감옥 서신 중 3 개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고 1 개는 빌레몬이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마지막 그룹은 일반적으로 사목 서신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이 그룹에는 첫째와 둘째 디모데와 디도가 있습니다. 이 세 글자는 많은 유사점을 공유합니다. 빌레몬을 제외한 바울의 다른 모든 편지와 구별되는 점은 그들이 개인에게 쓴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문제를 다룬다는 점입니다. 목회서신이라 불리는 이유는 교회의 목회자나 지도자들(디모데, 디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도할 때 이 사람들에게 지침과 조언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을 임명하여 하나님의 양 떼를 인도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디도서의 편지에 집중합시다. 바울이 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몇 가지 배경 질문에 대해 보겠습니다.

1 Who wrote the letter?

The letter itself (verse 1) and the very earliest traditions tell us that the Apostle Paul is the author. I believe along with most conservative scholars that Paul wrote 13 letters in the New Testament including the three pastoral epistles. This was the majority position until relatively recently. In the 19th century the authenticity of Paul's authorship of the pastoral letters was strongly challenged. The arguments against Paul being the writer can be summarised as follows. Firstly that the vocabulary and writing style is different to Paul's normal style. Secondly that the theological emphasis differs slightly from Paul's other letters. Thirdly that the events mentioned cannot be fitted into what we know about Paul's life and ministry. Therefore many claim that the letters are "deutero-Pauline." This means that they were not written by Paul himself but by one of his disciples following Paul's style or tradition. All of these arguments I believe can be refuted. Therefore I believe that Paul guided by the Holy Spirit wrote this letter.

편지 자체(1 절)와 가장 초기의 전통은 사도 바울이 저자임을 알려줍니다. 나는 대부분의 보수 학자들과 함께 바울이 세 개의 목회서신을 포함하여 신약성경에서 13 통의 편지를 썼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최근까지 대다수의 위치였습니다. 19 세기에 바울이 목회 서한을 저술했다는 사실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저자임을 반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어휘와 글쓰기 스타일이 바울의 일반적인 스타일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둘째, 신학적 강조가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약간 다르다. 셋째, 언급된 사건들은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그 편지가 "중-바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바울 자신이 쓴 것이 아니라 바울의 스타일이나 전통을 따르는 그의 제자 중 한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믿는 이 모든 주장은 반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 이 편지를 썼다고 믿습니다.

2 When and where

The letter was written after Paul's first period of imprisonment in Rome. This imprisonment lasted from 60 to 62 AD. Upon release Paul continued his missionary work until he was again imprisoned in 66 AD. He was executed in 68 AD. Therefore we know that Titus was written at some point from 62 to 66 AD.

Where was the letter written. Again there is some disagreement here. Titus ends with Paul telling Titus to come and join him in Nicopolis on the west coast of Greece.

When I send Artemas to you, or Tychicus, be diligent to come to me at Nicopolis, for I have decided to spend the winter there. (Titus 3:12)

Was Paul writing from Nicopolis or was he travelling there and actually wrote it from some place in Macedonia? The truth is we cannot be certain.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으로 투옥된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이 투옥은 서기 60 년에서 62 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석방된 후 바울은 서기 66 년에 다시 투옥될 때까지 선교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서기 68 년에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Titus 가 서기 62 년에서 66 년 사이의 어느 시점에 기록되었음을 압니다. 편지가 쓰여진 곳. 여기서도 약간의 이견이 있습니다. 디도는 바울이 디도에게 그리스 서해안의 니코폴리스에 와서 자기와 합류하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내가 아르테마나 두기고를 너희에게 보낼 때에 부지런히 니코폴리스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딤후 3:12) 바울은 니코폴리스에서 글을 썼습니까? 아니면 그곳으로 여행하면서 실제로 마케도니아의 어느 곳에서 썼습니까? 진실은 우리가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 Who was it written to?

The letter is addressed to an individual named Titus. Titus was a Greek Gentile (Gal. 2:3) who had probably become a Christian under the influence and guidance of Paul. He was a young man who it seems was physically strong and possessed of a courageous character. We do not know exactly how, when or where they met. They may well have met at some point during Paul's first missionary journey. We do know that Titus became a very helpful and faithful co-worker of Paul. He appears by name 13 times in the pages of the New Testament. We know that Paul took him as an uncircumcised believer to Jerusalem when he discussed the gospel with the church leaders (Gal 3).

Titus would have been an excellent example of a born-again Gentile Christian. He was living proof that the rite of circumcision was unnecessary for salvation.

He also worked with Paul during his third missionary journey in Ephesus. Clearly Paul thought very highly of him because he was trusted with some special assignments. It is likely that he served as a bearer of two letters to the Corinthian church, and he was also chosen to lead a group of men to pick up the collection for the poor saints in Jerusalem (2 Cor. 8:6, 16, 23).

Following Paul's release from prison in 62 AD it appears as if he travelled to Crete with Titus. They worked together there for a short time before Paul left leaving Titus behind to continue the work. Apparently Titus did rejoin Paul at Nicopolis as Paul requested. It also seems likely that Titus was with Paul during some of his second Roman imprisonment. It appears that during this time that he was despatched to work in Dalmatia (2 Tim 4:10). This is his final mention in scripture. Church tradition says that after Paul's death Titus returned to Crete and served faithfully as a bishop there until his own death.

Before moving on let me say a few words about the island of Crete. Crete is the 5th largest island in the Mediterranean. It lies about 160 km from the Greek mainland and is approximately 260 km long and 56 km wide. It has an ancient history and at one time was the center of the Minoan civilization (2700–1420 BC). In Titus' day there were between twenty and thirty major settlements and many Jews living the island.

편지는 Titus 라는 사람에게 보내졌습니다. 디도는 헬라인 이방인(갈 2:3)으로 바울의 영향과 인도 아래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강인하고 용감한 성격을 지닌 청년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들은 바울의 첫 번째 선교 여행 중 어느 시점에서 만났을 것입니다. 우리는 디도가 바울의 매우 도움이 되고 충실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신약성경에 13 번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을 논의할 때 할레반지 않은 신자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을 압니다(갈 3 장). 디도는 거둬난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훌륭한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할레 의식이 구원에 필요하지 않다는 산 증거였습니다. 그는 또한 에베소에서 3 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바울과 함께 일했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몇 가지 특별한 임무를 맡았기 때문에 그를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 두 통의 편지를 전달하는 일을 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헌금을 줌기 위해 한 무리의 사람들을 인도하도록 선택받았을 것입니다(고후 8:6, 16, 23).). 서기 62 년에 바울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 디도와 함께 그레테로 여행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일을 계속하기 위해 바울을 남겨두고 떠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잠시 동안 함께 일했습니다. 바울이 요청한 대로 디도는 니코폴리스에서 바울과 다시 합류한 것 같습니다. 또한 디도는 바울이 두 번째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달마티아로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딤후 4:10). 이것은 성경에서 그의 마지막 언급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바울이 죽은 후 디도는 그레테로 돌아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감독으로 충실하게 섬겼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크레타 섬에 대해 몇 마디 하겠습니다. 크레타 섬은 지중해에서 5 번째로 큰 섬입니다. 그리스 본토에서 약 160km 떨어져 있으며 길이는 약 260km, 너비는 56km 입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때 미노아 문명(기원전 2700-1420)의 중심지였습니다. 티투스 시대에는 20 개에서 30 개의 주요 정착촌이 있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섬에 살고 있었습니다.

4 Why was it written?

Paul had left Titus on Crete as the leader of the church. He was tasked with bringing order and structure to the church there. This was not an easy task, the people on Crete had a reputation for being difficult to manage. Therefore Paul wrote to encourage his young protege. He also wrote to instruct him on how to select good leaders and exhorted him to adhere to sound doctrine. He is also instructed on how to deal with those who oppose him. Finally, Paul reminds him that he has future plans for him and that they have work to do together.

바울은 디도를 그레테에 남겨두고 교회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그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 질서와 구조를 가져오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그레테 사람들은 관리하기 어렵다는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의 젊은 제자를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지도자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썼고 건전한 교리를 고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지시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이 있고 함께 할 일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5 Why should I read it today?

Some might look at this letter and say, well I'm not a pastor on the island of Crete. What does this letter teach that remains valuable today? The obvious answer to this question is that it is God's Word. He didn't preserve anything that was not of great value and importance to those that love and serve Him. There are many things we can learn from reading Paul's letter to Titus. Firstly it teaches us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within the church. Any organisation is only as strong as its leaders. This is particularly true for the church. Without good shepherds the sheep get lost or are attacked and devoured by wolves. Secondly it reminds us what leaders but more generally all believers are to stand upon. We are always surrounded by false ideas and false doctrines. Therefore we need to know what we believe, hold onto it firmly and impart it to others. Thirdly the letter reminds us of our roles and responsibilities within the body of Christ. We should not be selfish in our outlook but think about others. Finally, it very importantly reminds us that God's gift of salvation does not end with us. We are to share God's goodness with the world. This means not being selfish or self-centred but loving others.

With our introduction now complete let's look at the opening of Paul's epistle to Titus.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를 보고 '나는 그레테 섬의 목사가 아닙니다. 이 편지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치 있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그다지 가치가 없고 중요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보존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우리에게 교회 내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모든 조직은 리더만큼 강합니다. 이것은 특히 교회에 해당됩니다. 선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길을 잃고 늑대에게 습격을 당합니다. 두 번째로 그것은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더 일반적으로 모든 신자들이 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항상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교리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편지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을 생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의 소개가 완료되었으므로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시작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 Paul, a bond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 acknowledgment of the truth which accords with godliness,

The letter begins as did all ancient letters with the greeting or salutation. Typically included in the salutation was the author's name, the name of the recipient or recipients and a special greeting or message to this person or group. Paul introduces himself here in an interesting and unique way. He describes himself as a **bondservant of God**. Bondservant here is the Greek word *doulos* meaning a servant, attendant or slave. This is the only time in his letters that he uses this expression. It's an interesting word choice because a *doulos* was the lowest form of slave in the ancient world. More commonly he uses "Servant of Christ."

Today of course we associate slavery or servitude with misery and drudgery. No one would volunteer to be a slave today. However in the Jewish mind service to God was an honor and privilege. We too should consider our work and service to God in the same way.

He also adds that he is an apostle of Jesus Christ. An apostle in broad terms means someone sent out

with a message. However here Paul is identifying himself along with the other Apostles as being especially chosen and sent out by Christ. He then goes on to outline his role as God's servant and messenger of Christ. He is to minister to God's elect, those God has chosen to save to saving faith in Christ. As an Apostle he does this by revealing the truth to them and encouraging them to put their trust in Christ and live good God honouring lives.

편지는 인사말이나 인사로 모든 고대 편지와 마찬가지로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인사말에는 저자의 이름, 받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이름, 이 사람이나 그룹에 대한 특별한 인사말이나 메시지가 포함됩니다. Paul은 여기에서 흥미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노예는 하인, 수행자 또는 노예를 의미하는 헬라어 *doulos*입니다. 그가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의 편지에서 유일합니다. 둘로스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낮은 형태의 노예였기 때문에 흥미로운 단어 선택입니다. 더 일반적으로 그는 "그리스도의 종"을 사용합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노예제나 노예 상태를 비참과 고역과 연관시킵니다. 오늘날 아무도 노예가 되겠다고 자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는 영예와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일과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덧붙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사도는 메시지를 가지고 파송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택하시고 보내신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이자 그리스도의 사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하는 믿음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도록 택하신 자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도로서 그는 그들에게 진리를 계시하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삶을 영예롭게 하는 선한 하나님을 살도록 격려함으로써 이 일을 합니다.

2 in hope of eternal life which God, who cannot lie, promised before time began,

As believers our faith rests in the assurance of our salvation. We believe that Christ's work upon the cross saved us, past tense. It is a work that God has completed. Christ's salvific work was once and for all sufficient. We also believe that God is continuing to save us. Over the course of our lives we are slowly being changed and transformed into the image of Christ, present tense. We also ultimately have faith that in the future He will save us. We have His promise of eternal life in His presence to look forward to.

Now it is a sad reality that human beings lie. How often in our lives have we hurt, disappointed and angered other people with our lies. Often we try to minimise our lies by describing them as "half truths", "white lies" or "simply a stretching of the truth." Let's be honest and call them what they are; lies. Sadly there are cultures today in which lying is deemed acceptable in certain circumstances. I am thinking of cultures where people lie to the police for example to protect guilty people. God though cannot lie. It is inconsistent with His divine character. In Numbers 23:19 we read.

**"God is not a man, that He should lie,
Nor a son of man, that He should repent.
Has He said, and will He not do?
Or has He spoken, and will He not make it good?"**

So Paul is telling us here that our hope for our eternal salvation is not based on wishful thinking. But rather it rests firmly upon God's promises. We are assured of our salvation because God from before time existed determined who He would save.

믿는 자로서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확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믿습니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단번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우리는 서서히 변화되어 현재 시제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또한 미래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면전에서 영생에 대한 그분의 약속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의 거짓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키고, 화나게 했는가. 종종 우리는 거짓말을 "절반의 진실", "선의의 거짓말" 또는 "단순히 과장된 진실"로 묘사함으로써 자신의 거짓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합니다. 정직하고 그들이 무엇인지 불러 봅시다. 거짓말.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특정 상황에서 거짓말을 용인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범죄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에게 거짓말을 하는 문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 장 19 절에서 우리는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도 아니니 그가 회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말씀하셨고,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말씀하셨는데 선을 이루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헛된 생각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확고히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누구를 구원할지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3 but has in due time manifested His word through preaching, which was committed to me according to the commandment of God our Savior;

The way that God's truth is shared with the world is through preaching. Today when we see or hear the word “preaching” we typically think about a pastor speaking in church on a Sunday. This is one of the ways God has chosen to have the gospel truth proclaimed.

We should also however think more broadly of preaching as being the announcement, or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message to the world. In this sense all believers are tasked with telling people the good news. God has called you to “preach” or proclaim the good news to others.

Paul arrived in history at exactly the time that God determined. God always had truths to impart to His people but following the life, death and resurrection of Christ there was a new message to give to people. The old message had been superseded. Paul along with the other Apostles had been chosen by God and commanded to share it with the world. Now we stand two thousand years further along the road from Paul and yet the command from God to us remains the same. We too are commanded to preach the gospel to the world and tell them about the hope that lies in Christ.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설교”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을 때 일반적으로 일요일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진리가 선포되도록 선택하신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설교를 세상에 대한 복음 메시지의 선포 또는 선포로 더 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신자들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파”하거나 선포하도록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정하신 정확한 시간에 역사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에게 전할 진리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 이후에 사람들에게 전할 새로운 기별

이 있었습니다. 이전 메시지가 대체되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의 길을 따라 2천 년 더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 To Titus, a true son in *our* common faith: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Paul here tells us who the recipient of this letter was. It was as we have said before his protege and loyal co-worker Titus. How and when they met is unknown. The absence of his name in Acts is somewhat strange. It is highly likely that it was through Paul that Titus came to faith in Christ. Also. We know that he was an uncircumcised Greek Gentile but despite this Paul saw him as a brother is the common (same) faith. He had on many occasions proved himself to be a dependable and faithful co-worker. He ends his salutation with a typical formula from Christian letters at this time, **Grace, mercy, and peace from God the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our Savior.** As Paul writes them though they become much more than just a mere formality. Paul had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Christ and knew Him to be the source for grace, mercy and peace. Next time we will begin to look at the contents of Paul's letter to Titus.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그것은 그의 제자이자 충성스러운 동역자인 티투스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였습니다. 그들이 언제 어떻게 만났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 다. 사도행전에 그의 이름이 없는 것은 다소 이상하다. 디도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바울을 통해서였을 가능성이 큼니다. 또한. 우리는 그가 할례받지 않은 헬라인 이방인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를 형제로 보았습니다(같은) 믿음입니다. 그는 여러 번 자신이 신뢰할 수 있고 충실한 동료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이 시대 기독교 서신의 전형적인 표현인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으로 인사를 마칩니다. 바울이 쓴 것처럼 그것들은 단순한 형식 이상의 것이 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은혜와 자비와 평강의 근원이심을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ings to think about

I have three points to make concerning today's sermon.

오늘 설교와 관련하여 세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1 Our role and position in the kingdom

If we were to draw up a list of the most important, significant or influential men in Christian history where would we place Paul? I'm sure that you would agree that Paul would be right at the top. Let us think of his accomplishments. He authored 13 books of the New Testament. He helped take the gospel and spread it around the world. He planted hundreds of churches and trained the first generation of pastors and church leaders. He single-handedly changed the world. And yet look at how he introduces himself to Titus. Not, "Hello, this is the great Apostle Paul." But, "Here I am the slave and messenger of God. Here I am joyful just to serve in whatever way God wants me. Here I am ready to live and die for Him." Too often church leaders can become arrogant and prideful. Their "elevated" status makes them wrongly belief that they are something special. Paul shows us what God wants from us. That we be humble and willing servants. Not to serve in misery and sadness. But instead to serve joyfully and willingly.

1 왕국에서 우리의 역할과 위치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요하거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작성한다면 우리는 바울을 어디에 배치할 것입니까? Paul 이 정상에 있다는 데 동의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의 업적을 생각해 보자. 그는 신약성경 13 권을 저술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 세계에 퍼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그는 수백 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 세대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혼자서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가 Titus 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위대한 사도 바울입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사자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섬기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여기에서 나는 그분을 위해 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자주 교회 지도자들은 오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높은" 지위는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고 잘못 믿게 만듭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겸손하고 기꺼이 종입니다. 불행과 슬픔에 봉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대신 기쁘게 기꺼이 봉사합니다.

2 Our assurance

Today when we speak about hope most of us mean something that we are wistfully anticipating might happen. I hope my English football team has a good season, perhaps even getting promoted to the premier league. I hope to get a pay rise at work. We use the word hope because there are many variables that influence whether what we hope for comes about. A pay rise might depend on the countries economy or good sales of a product.. My football teams success may depend on a star player not getting injured. But when we talk about hope that rests in God it is an altogether different kind of hope. Because its fulfilment rests in God we can have assurance. He has given us His promise, and we can trust that He will never fail to deliver on His Word.

2 우리의 확신

오늘날 우리가 희망에 대해 말할 때 우리 대부분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잉글랜드 축구팀이 좋은 시즌을 보내고 프리미어 리그로 승격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급여 인상을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급여 인상은 국가 경제나 좋은 제품 판매에 달려 있습니다.. 제 축구 팀의 성공은 스타 선수가 부상을 입지 않는 데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소망입니다. 그 성취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3 Our change from ungodly to godly

One of the key concepts in all of the pastoral epistles is that of godliness. The truth of the gospel changes a life from ungodliness to holy living. There were people in Crete, just like there are today to whom this does not seem to apply. People who profess to know Christ but who live lives that contradict their confession. Sadly none of us will be perfect whilst we are here on earth. We will all be tempted and fall into sin from time to time. But the tenor and direction of our life should be towards holy living. This should be obvious to those around us. We should strive to be good examples to those we encounter every day. We should never wilfully indulge in sin or try to excuse ungodly living. Let us then look to Christ and seek to live lives that bring Him glory and help advance the Kingdom.

3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서 경건한 사람으로의 변화

모든 사목 서신의 핵심 개념 중 하나는 경건치 않은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것이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그레테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안다고 공언하지만 그들의 고백과 모순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 슬프게도 우리 중 누구도 이 지상에 있는 동안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시험을 받고 죄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지향점과 방향은 거룩한 삶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고의로 죄에 빠지거나 경건하지 않은 생활을 변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다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왕국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